

<b>인터넷총국 (홈페이지 http://data.rutc.com)</b> 후원: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	
<b>분류</b>	구역공과-2019년 46과
<b>제목</b>	<b>전도자의 방법12- 성도를 알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b>
<b>성경</b>	<b>사도행전 2:1-4</b>
<b>일시/장소</b>	2019년 11월 17일, 부산 임마누엘교회
<b>강사</b>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b>주제어</b>	

♣ **성경말씀 (사도행전 2:1-4)**

-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구역공과 자료** ♣

♣ **서론- 이 시대는 3전쟁 시대**

- 1)영적 전쟁→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 복음과 3단계
- 2)인재 전쟁→ 치유와 서밋
- 3)문화 전쟁→ Mason 전쟁(성전 건축)
- ▶지금 3단계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가?  
나 중심의→ 무아지경, 열반, 유아독존.
-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표를 가져야 하는가?

**1.성도를 치유하는 시간표**

- 1)12가지 인생문제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꿔주라→ 답
- 2)기도할 수 없는 황폐되어버린 영적 상태를 바꿔주라→ 집중  
(1)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행1:3, 행1:14, 행2:1-4)  
(2)말씀 성취(행2:14-21)  
(3)24, 25, 영원의 응답속으로(행2:46-47, 행5:42)
- 3)행1:1, 3, 8의 흐름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라→ 흐름속으로

**2.교회를 치유하는 시간표**

- 1)마16:13-20,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으라.
- 2)행2:1-13,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라.
- 3)행2:14-47, 교회를 통해서 허장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라.

**3.전도, 선교를 치유하는 시간표**

- 1)행21 오순절 날, 행2:5 그때에, 행2:18 그때에, 행2:41 이 날에, 행2:46-47 날마다.
- 2)행11: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 3)행13:1-4, 성령께서 장소와 사람과 일을 지시하신 것이다.
- 4)행16:6-10, 하나님이 문을 닫는 시간표가 있고, 문을 여는 시간표가 있다. 마케도냐로 향하는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이다.
- 5)행19:21, 행23:11, 행27:24,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 **결론→ 교회 치유하고, 교회 살리는 3제자가 되라!**

- 1)비밀 결사대+Holy Mason+Remnant Ministry
- 2)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The end)

♣ **구역공과 - 녹취 자료** ♣

♣ **서론- 이 시대는 3전쟁 시대**

- ▶여러분이 지금 1순위로 삼아야 된다.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제자”, 그 중에 특히 우리는 지금 서울, 울산 다 부산 똑같이 공통적으로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도 1순위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애 어떻게 응답 오는지 평생에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2순위로 하면 안 된다. 1순위로 삼아야 된다.
- ▶1순위로 삼을 때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보시라.
- 1)영적 전쟁→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 복음과 3단계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전 세계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 주로 이제 뭘 가지고 시작 했는가 하니까 우상 신전을 만들어놓고 시작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1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는 것이다. 이미 싸움을 저버린 것이다. 지금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에 1순위를 두고 있단니까요?
  - 2)인재 전쟁→ 치유와 서밋  
▶이래가지고 인재들을 다 뺏어 가는 것이다. 인재 전쟁이 붙었는데 인재들을 다 뺏어 가는 것이다.
  - 3)문화 전쟁→ Mason 전쟁(성전 건축)  
▶이래가지고는 전쟁해서 문화를 다 뺏어가니까 지는 것이다.

▶분론-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힘없어도 괜찮다. 언약만 바로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렇죠? 되고 안 되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응답이 되나, 안 되나, 그런 다음 얘기고 기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가난해도 기도는 바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지만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걱정 할 필요 없다. 성경을 한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보시라. 언약 바로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잡은 사람에게 기도는 응답 된 것이다. 틀림없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뒤에 생각을 해봤다. “교회가 자꾸 다른 것 하면 되겠냐? 결과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해야지, 다른 것 하면 되겠냐?”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난 말이다.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난 말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세계복음화란 단어가 왜 중요하냐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딱 잡은 것이다. 이걸 해야 된다.

▶사실은 제게는 아무 힘이 없었다. 저는 특별히 그렇더라. 다른 사람들이 전도사님들 살펴보면 좀 배경이 있다. 저는 배경이 없는 것이다. 어찌 된 일인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다른 학생들은 보니까 돈을 많이 쓴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쓴다. 저는 돈이 없다. 학생이 돈 없는 게 맞잖아요? 나는 노다지 조운택에게 얻어먹었다니까요? 그 뒤에는 내가 목사 되고 난 뒤에는 항상 이제 100% 밥 사주고 이렇게 한다. 얻어먹은 것을 생 각해가지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으냐? 알고 보니 뿔뿔더라.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나는 빚내서 놀러 다니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 너무 배경이 없다. 이 말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제가 언약을 바로 잡고 있어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 와 있다.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성전을 짓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 냐?

- 1.성도 치유- 성도님들을 치유해줘야 된다.
- 2.교회 치유- 그리고 실제 교회 치유해야 된다.
- 3.전도, 선교 치유- 뭘 전도, 선교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치유해야 된다.

**1.성도를 치유하는 시간표**

-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 언약을 잡으시란 말이다.
- 1)12가지 인생문제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꿔주라→ 답  
▶지금 성도님들은 12가지 사탄이 준 문제를 모르는 교인이 대부분이고요, 몸이 아픈 것 말고 모르는 병에 걸려 있다. 이 사탄이 준 12가지 병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 있단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성전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
  - 2)기도할 수 없는 황폐되어버린 영적 상태를 바꿔주라→ 집중  
▶그리고 기도도 거의 못하고 있다.
  - 3)행1:1, 3, 8의 흐름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라→ 흐름 속으로  
▶그러다보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완전히 생활에 병이 들어 있다. 살려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면 램넌트들이 일주일 한 번 밖에 교회 안 온다. 올바른 기도하면서 올바른 복음 누리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램넌트 체험관이 필요하다. 램넌트들이 기도 할 장소가 필요하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하루 중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하다.

## 2.교회를 치유하는 시간표

▶자, 교회가 어떻습니까?

1)마16:13-20, 오직 복음의 언약 불잡으라.

▶지금 교회가 말이죠, 마16:13-20 이거 못 누리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2)행2:1-13,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라.

▶그리고 이게 이 능력이 있어야 세상 살릴 것 아닙니까? 이걸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3)행2:14-47,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라.

▶그러면 행2:41-47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중직자 되는 축복을 갖고 있다.

## 3.전도, 선교를 치유하는 시간표

▶자,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행2장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온다.

1)행2:1 오순절 날, 행2:5 그때에, 행2:18 그때에, 행2:41 이 날에, 행2:46-47 날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따라오는 것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리고 5절에는 “그때에” 이게 뭐니까?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다. 전도, 선교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다. 18절에도 똑같은 말, “그때에.” 41절에는 “이 날에” 이렇게 나와 있다. 46-47절에는 “날마다” 이렇게 나왔다. 중요하다. 이게 전도, 선교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다.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2)행11: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흠여진 자들이,

▶자, 시간표를 보시라. “스테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역사하신다. 고민하지 마시고 애쓰지도 마시고 언약 딱 잡으시라. 왜냐? 가장 큰 환란에 가장 큰 응답을 주셨다.

3)행13:1-4, 성령께서 장소와 사람과 일을 지시하신 것이다.

▶드디어 행13:1-4을 보시라.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 된다. 옛날에 간 것은 역지로 끌려 간 것이고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둘 중 하나다. 얻어맞고 갈 것이냐, 바로 할 것이냐. 그렇죠? 답은 간단하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 바뀐다. 죽도록 얻어터지고 할 것이냐, 성령 인도 받아 할 것이냐? 결론은 그렇게 나온다.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들어 소천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나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와 선교 시간표 속에 우리를 넣어 둔 것이다.

4)행16:6-10, 하나님이 문을 닫는 시간표가 있고, 문을 여는 시간표가 있다. 마케도나로 향하는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이다.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다.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둔 것이다. 위기가 왔을 때는 가장 큰 응답이 왔고 안 될 때는 가장 중요한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주셨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설쳐도 안 되지만 갱신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축복 받게 되어 있다.

5)행19:21, 행23:11, 행27:24,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행19:21,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속에 있는 사람, 초대교회 다 응답 받았다. 행23:11, “로마에서도 증거 해야 하리라.” 행27:24,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속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똑바로 제대로 하면 된다. 램턴트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라. 남의 회사 가서 월급 받고 돈도 안 되도록 일하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아이들보고 가르치라니까요? 불신자보다는 10배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니, 불신자 회사 가서 회사가 잘 되도록 해놓고 월급 받아 와야지, 안 되도록 하면서 월급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딱 있으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성도와 교회와 시대를 치유 할 사명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이다. 다른 것 잡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당장 마치고 얘기해보시라. 또 다른 얘기 한다. 듣는 척 하고 듣지 마시라. 말씀 딱 붙잡아라. 그렇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 틀린 소리 또 한다. 듣는 척 하시라. 내가 옛날에 우리 손녀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 “야, 너는 바이올린 배우더니 교회 어떤 왜 연주 안 하나?” 물어 봤다. 잘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서 연주하려면 잘해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말실수를 했다. “야, 그냥 하는 척 하면 된다.” 이 손녀가 딱 날 보고 질문하는 것이다. “할아버지, 내가 하는 척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이고, 미안하다고 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언약만 딱 잡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셔야 된다. 그 다음 것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 산업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있는데 결국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언약 밖에 있다, 그건 아무리 내가 잘해도 틀린 것이다.

중직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하겠다.

## (기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업과 산업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http://data.rutc.com>

총 국 장: 김성호 목사(☎010-3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